

독서를 생활화하는 습성을 기르자

곳 : 소라다실

특집
좌담

학생회의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일 시 : 1971년 9월 17일 오후 1시
장 소 : 본사 편집실
참석자 : 조문부 교수(학생과장)
조영찬 (경·3 : 총학생회장)
고숙희 (가·3 : 총학생회 부회장)

강재철 (제·3 : 수산학부 학생회장)
김홍조 (수의·3 : 농학부 학생회장)
임덕신 (경·3 : 총무부장)
사 회 : 김철수(본사 편집국장)
대표집필 : 김광수 기자

1. 국제정세에 비추어본 우리의 자세

미국과 중공이 해방무드가 된 세계로 바뀌고 있다. 미국은 그들의 프로그래밍을 토대로 발전하였으나 그외의 나라는 지이 Nationalism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중공의 해방무드는 각각 자국(自國)이 이해타산적인 면에서 필요성이 있으므로 더욱 고조되는 것 같다.

국제정세에 승리하는 사람만이 요구되는 선 시점에서 볼 때 이러한 진리는 꼭 있어야만 하는 필수불가결의 원칙이다. 어떻게 하면 대 학생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지닐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대학생활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힘, 즉 실력의 문제라 귀착된다. 가까운 예로서 일본의 문화개방을 요구하며 미합중국이 포격음압 행했을 때 열기에 찬 일부 학생들이 전쟁을 주장했으나 결국 힘이 없어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문제

의 타락상은 첫째, 학생들간의 학구적인 분위기가 안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어떤 뚜렷한 목적의식이나 확고한 인생관도 없는 나약한 생활을 지속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다. 특히 간접선거(내년에는 직접선거를 치르게 될 것임)를 치루는 데서 오는 패단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몇몇 학생들이 특정인물인물과 시킨다든가 일단 입후보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야 한다는 욕심때문에 더

우선 학생 스스로가 대 학생들을 공적 목적을 가지고 공로를 개시시켜야 하며 총학생회의 책임도 크지만 학생들의 협조 없는 어려울 것이다. 내

하여 직접 교수를 찾아가 상담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소속한 학과에 대한 애착심도 중요하다. 자기의 전공분야를 모르고 어떻게 전공분야를 생각할 수 있는가? 이는 전공분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강구해야 된다. 한편 서구문화에 대한 동·수산학부의 경우 지역적인 차이로 인하여 학교방식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수가 많고 또 교수님들이 무관심한 태도일 수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각 기체의 사인모

도 문제가 되었지만 우선은 학생들의 자세 확립이 중요하다. 좀더 학생회의 일원으로서 학생회에 자기 자신이 직접 참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주의깊게 바라보고 여러가지 의견제출하고 또 선봉에서 서서 일할 수 있는 학생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수수 방관적인 태도나 무관심 속에서 학생회는 제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다시 구태의연하게 옛것을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 제주대학의 경우 두가지 측면에서 총학생회의 운영방안을 설정해야 한다.



대 학생으로서 자세 갖춰야 학구풍토조성과 선거풍토 개선이 급선무

이러한 현상은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바 일단 이해가 서로 상반된다면 회의를 치루며 양보하지 않으리라 본다. 공산세계의 전략적 협상은 「파」와 같은 것이다.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경우 상대방과 손을 잡고 그 기간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누를 수 있는 힘을 기른다. 즉 각편은 던지고 일면만 먹는 것과 같다. 이러한 해방무드는 우리는 비판도 낙관도 할 수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적극 반대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며 전세계 제국주의 공존을 시킨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린다면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간의 생활에서도 실력자

는 학생자신, 나아가서는 전 국민이 실력을 갖추고 부수적으로 국가의 힘이 강대해지면 국제정세의 변동에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제 조국이 젊어질 우리들은 자신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분주 노력해야 한다.

2. 대학 선거의 풍토개선시급

본래 학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선거의 타락상에 있다. 이러한

은 학생자신, 나아가서는 전 국민이 실력을 갖추고 부수적으로 국가의 힘이 강대해지면 국제정세의 변동에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제 조국이 젊어질 우리들은 자신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분주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선거의 타락상은 우선 파벌의식에 발상한다. 지금 현재의 선거 풍토로 생각해 볼 때 적선 제로 바뀐다 해도 마한가지가 될 것이다. 학생들의

공고도 법문학부에는 붙어 있던 농학부에서는 공고로 보기가 힘들 정도이다. 학교 당국이나 교수님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사제간의 불

세나 국가의 시책에 호응, 좀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학생회가 필요하다. 특히 요즈음 같이 국제적으로 해방무드를 타고 흐르는 남·북 적십자 회담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본 대학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취임이전 깊은 사명감으로 알찬 신문을

대학의 존재이유를 더욱 명확히 해주었고 대학내의 언론정도를 위해 지령102호에 이르기까지 습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본 신보에 미약하나마 저의 힘을 투기하여 될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어제가 더욱 부주의의 점을 금할 것이 없음을 다.

그러나 제대신보가 지령 102호를 맞이하여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담보상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통감하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국장을 맡게 되면서 몇가지 취임부담을 밝히려 합니다.

첫째는 알찬신문을 만

3.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의 결여

교수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학생과 교수의 대화의 결여는 불가피한 것이다. 대담한 결의시간 동안에 지식수익을 주로해야 하기때문에 정작 필요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수들끼리 피하러 드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의 성의 여하에 따라 공감을 얻거나 갈수록 있을 수 있다. 교수와 학생의 대화의 결여는 어느 정도를 배우는 방법으로써 셋째 세분화들을 통해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즉, 교수 초청강연을 자주 가져 교수와의 접촉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청강연도 너무형식적이고 교수 일방적인 편견이 있다. 학생들의 장래문제에 이성문제를 대면하고 여러과제를 초청 강연을 통해서, 즉 교수일방적인 강연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윤이 나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한가한 시간을 택

4 바람직한 학생회의 운영방안

적극협조하는 태도 필요 학생의사를 대변하는 학생회 만들터

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Column을 신설하였으니 독자제위의 배전의 격려를 바랍니다

◆ 화제를 찾아서 ◆ 부속기관 탐방

◆ 이달의 메로 ◆ 명곡 순례

◆ 신간서적 안내 ◆ 동문 탐방

◆ 사색의 창가에 (교수수필)

원고모집

본사사령

면 김한준 (편집국장) 임기만료고배실(기)원면홍준희()원면

편집국장 김철수 (경·3) <9월1일자>기자 이혜경 (가·1)양평구 (수·1)수습기자 이형식 (축·1)문영철 (영·1)김병준 (수·1)

제 17 회 독서주간

「일반 대중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독서를 생활화하는 습성을 배양하며 대학생으로서의 교양을 익히며 나아가서는 문화예술 중흥의 발판을 만드는 데있다」 올해로서 열일곱번째 맞이하는 독서주간의 목적이다. 지난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독서주간의 행사로 본 제주대학 부속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독

서의욕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독서론 현상 모 집」을 하고 있다. 올해로서 2회째를 맞이하는 이 독서론 응모 작품은 본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는데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로 그 제한을 두고있다. 내용이나 소재는 자유이며 독서의욕 고취에중점을 두면 되는데 제출처는 서판에서는 「학생들의 독



銀河路

호르는江를
여울물 소리.....
호수로 거니는江邊에
질어가는 어스름

갈잎 쓸리는 바람결엔
별레울음이 서러운데

하늘 아스라이
하나 둘.....
새겨지는 별처럼
後日の 바람에
한없이 보낸 나날.....

銀河에 모둔
눈동자마다
아름겨 흐느끼는 이밤
먼 하늘 銀河가
西天가로 기우.....다.

김철수 (국.1)

아웃코너



천고마비 이틀 돌리면가
울음 직접 느낄수가 있을
것이다. 저녁 늦게 별판
을 가로질러는 어미소의
아기소 왓는 소리와 좋은
마당을 감싸고 돌다가 낮
선 사람을 향해 있어는
강아지 소리, 그리고 우중
충한 선술집에서 텅텅하게
튀어선 박걸리를 기울이는
소리, 이는 가을을 대신한
높은하늘을 돋보이게 해주
는 가을의 소리가 아닌가?
무너진 돌담가에 얹힌담
장이 인쇄 하나가 살짝바
람을 안고 반쯤을 스치어
호르는 것을보고 가을을느
끼는 나 자신은 어딘가가
울음 바래서 기다리는것보
다 원하는 생각이 든다.
허기야 거리를 거니는 미
녀, 미더, 먹시아가씨의 모
습에서 혹은 유령에 들른
10대 남학생의 T셔츠에서
제절이 바뀐을 인식하는사
랑이 많겠지만서도 가을의
정취, 즉, 하늘이 높은 제

절의 감각을 지극히 느
끼는 것은 가을을 읽는
자 자신이라 하고싶다.
여러한 하늘은 높고
은 살이 전하는 말은 가
을을 대변한 한 방정식인
은 서늘이나 시정 (市井)
의 속물로서는 어딘가
스러내게 있다. 말이 살
찌는것은 그들다르데도사
람이 살이 찌지 못할 땅
정 시를시를 읽는것은 어
찌된 일인가. 옛 詩人 裴
子才의 詩句
「無秋不病 中年後, 有酒
重歡 碧月天.....」
(가을철이 되면 중년후에
는 술이 없을날이 없고
있는 있어 거듭 푸른 달밤
에 노래한다.....) 라는 文
이 있듯이 가을은 풍성한
을 찾는 계절이 아닐까싶
다.
가을은 가을로서, 또한푸
르게 솟은 하늘과 말이살
찌는 천고마비의 표현으로
서 죽었다가, 가을의 소리
와 가을의 마음을 지닌천
니, 미더, 먹시아가씨의 모
습에서 혹은 유령에 들른
10대 남학생의 T셔츠에서
제절이 바뀐을 인식하는사
랑이 많겠지만서도 가을의
정취, 즉, 하늘이 높은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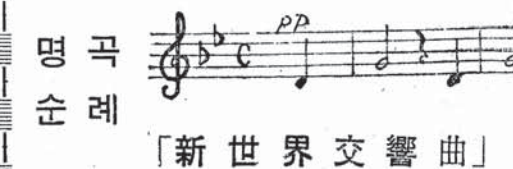
국문과 2년 김병철

무제(無題)의 독백

이로.4 강영규

「새벽새가 잠잠 삼십년
만 담그면 늙고마는 人生」
비가 내려야 하는데,
내 온몸을 적시게 할수
있는 세찬 비바람이 몰아
쳐야 하는데,
진한 우물이 있어 「소영」
을 찾는 날 나무떨어진
않으리라. 알맞게 신선한이
저녁을 이렇게도 짜증스레
보내야 하더니,
「소영」의 애기대로 난
자신을 위해서 빈번하고생
각해야 한다는걸 이제사느
감하고 있다.
정말로 착해지고 싶은
데.....
「소영」을 미워할만한정
열이 내겐 없는데 슬픔이
있고, 자주 지기만 하는것
같아 자기 혐오가 절여지
는 오늘날 같은 날엔 비
참하게 만신창이가 되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무서움을
느낀다.
왜 모두들 즐거운 표정
들인지.....
소영!
부산의 어느거리인지 우
린 아침을 기다리며 작은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스머드는 새벽의 것 비런배
를 호호하며 전회가는 새
벽안개의 조용함 속에서서
빈들만에 주어진 무한
한 기쁨에 잠난스레 서로
를 치며 웃기도 했었다.
물마진 것일까?
조용한 새벽의 창가에서스
산하게 세수를 끝낸 「소영」
의 수건을 물러는 그 모습
을 보며 난 얼마나즐
거렸던가!
별시계가 열두번을 울다
참 대단한 놀이라고 생각
이 든다. 그렇게 울면서도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는
눈의 위안이 감탄사를 발
하게 하는데.....
명한 상태.
이 시선은 멀리만 하고, 내우
울음 감상하기에는, 이 슬
픔을 극복하기에는 난 너

무 어러 있는것 같다.
내가 호강스런 기분-사
랑의 빈번에 취해있었을
때 쓰레기 속에서 자기머
울것을 찾아내지 않으면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고싶다. 그들이 살기위한
파로움 속에 허덕이고 있
음에 난 사랑에 취하고있
었으니까.
상복을 입은 여자의 행렬
모자를 벗어는 남자-그런
죽은 사람에 대한 경의의
뜻에서가 아니라 미움 받
고 싶지않은 죽음 그 자
체에 대한 인사라고 생각
하고 싶은-들의 행렬.
아! 밤은 어찌된 이렇게도
멋진수 있었을까. 한가지에
서한 일온몸을 밟고 머지
않아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잠시후면 썩어진
이 불꽃에 들어가 홀로 잠드
는 것 뿐이다. 그리고 내일



명곡 순례 「新世界交響曲」

4년간 취미였는데 그동안
에 아메리카인디언이나 흑
인들의 음악을 연구했고그
결정으로 이 교향곡을 작
곡하게된것이다. 그는 이교
향곡을 작곡하기위하여 세
권의 스케치북을 썼는데스
케치를 끝낸다음 악기편성
의 대부분은 同鄉人 보헤
미아 사람들이 많이사는아
이노아주 스미트빌에서 작
곡 했다고한다. 1893년 12월
15일 「뉴욕필하모니오케스
트라」에서 자이들의 지휘
로 初演되었는데 제2악장

조, 4/8박자, Sonata형식)이
현악악단 전체음위에 호른
이 민족적이고 표현력이강
한 제1주제와 제2주제가상
대하게전환악율이들어간다
제2악장: (Molto Vivace,
장조, 4/4박자, Rondo형식)
「곰속의고향」이라는 향수
적이고 애절한 멜로디가악
누를수 없는 감정을 자아
내게한다. 이곡은 통크로로
의 명작 「하이아워저의 주
혼」을 탐독, 여기에서 영
감을 얻었다고 한다.
제3악장: (Molto Vivace,
E단조, 3/4박자, Trio형식)
보헤미아의 소박한 농민들
들의 춤을 연상시키는 민
속풍의 리듬이 귀엽게 울
러나오고 다시 舞踏風의스
케르소가 제현된다.
제4악장: (Allegro con
fuoco, E단조,
4/4박자
Sonata
형식) 트
림페스,
호른이행
진곡풍의 힘차고 발
랄한 제1주제를 울리고 다
시 이와 대조적으로 부드
러운 여성적인 주제가 울
러나오는데 의하여 연주된다
이곡은 끝으로갈수록 강인
한 힘과 自由奔放한 樂想
이 高潮되어 정점을 이루
고 폭이 끝난다.
- Calliope 제공 -

향수 느끼는 아름다운 선율 민족적 표현력의 민족풍 리듬

의 largo에 이르러서는 만
장의 부인들이 손수건을까
내서 울었다고하는 예미소
드가있다. 교향인 보헤미아
의 하늘을 쳐다보고 향수
에 못이끼면서 있었다 하
는, 그렇듯 향수정신을 느끼
게하는 아름다운 정서로여
어진 회대의 명작이다.
제1악장: (Adagio, E단

조, 4/8박자, Sonata형식)
현악악단 전체음위에 호른
이 민족적이고 표현력이강
한 제1주제와 제2주제가상
대하게전환악율이들어간다
제2악장: (Molto Vivace,
장조, 4/4박자, Rondo형식)
「곰속의고향」이라는 향수
적이고 애절한 멜로디가악
누를수 없는 감정을 자아
내게한다. 이곡은 통크로로
의 명작 「하이아워저의 주
혼」을 탐독, 여기에서 영
감을 얻었다고 한다.
제3악장: (Molto Vivace,
E단조, 3/4박자, Trio형식)
보헤미아의 소박한 농민들
들의 춤을 연상시키는 민
속풍의 리듬이 귀엽게 울
러나오고 다시 舞踏風의스
케르소가 제현된다.
제4악장: (Allegro con
fuoco, E단조,
4/4박자
Sonata
형식) 트
림페스,
호른이행
진곡풍의 힘차고 발
랄한 제1주제를 울리고 다
시 이와 대조적으로 부드
러운 여성적인 주제가 울
러나오는데 의하여 연주된다
이곡은 끝으로갈수록 강인
한 힘과 自由奔放한 樂想
이 高潮되어 정점을 이루
고 폭이 끝난다.
- Calliope 제공 -

신간서적 안내

※문스트이 人生論全集 監 譯: 朴在森 禽岡亨 池
修 黃玩(外國語大學 路語 昌壽 崔乙林 (主)理性이陶

흔들리는 백

글. 고시흥 (국.4) 그림 김광수 (국.2)

박병수의 허파에서 피식
침바른 웃음이 떨어졌다.
분명 박병수는 자기 집이
라 생각하여 들어간 것인
데 엉뚱한 오해를 받았던
일이 오를오를 일어는것이
이었다. 그것도 도깨비라도
출몰하는 더욱 만무한
백주에 일어났던 일기에
더욱 씁쓸한 미소 자아
내게했다.
부엌길 뒷문으로 이용되
는 터널을 위에는 언젠가
처럼 한 켄레의 고무신이
놓여 있었다.
진 머릿결 풀고 거울앞
에 앉았던 아내의 온온하
면서도 포랑진 목소리가들
렸다.
「인제 오세요요?」
「?」
「무슨 기분 나쁜일이래
헤기 시작하였다.

그 후야 박병수의 집
은 열한번의 세월이 아
니고 열 두번의 세월의면
서두에 위치하고 있음알
았다. 그리고 아내의 고무
신 밧발도 조금전 보았던
그녀의 흰 고무신과는 전
혀 다른 분홍색 고무신이
었다.
박병수는 이런 일이 있
었던 뒤에, 맞은편 율타리
- 5백여평의 판사촌 대지
는 전부 철조망으로 울타
리를 두르고 있는 것이다-
에 하얀 형철조망을 배
경을 들먹이던 삼살개도양
꽃만 뛰쳐나왔다. 오금박
수가 판사촌을 떠날 때쯤
에는 그 형철친은 쇠사슬이
들어 겨우 그 혼전만 남
아있었다.
(살갓이 찢겨져 나가는



듯한 철조망에 걸린 바람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득
하게만 보이던 그 마을을
얼마나 동경하였는가. 그리
고 철조망 틈으로 들어와
앉은 마을 한복판에 솟은
그 죽탑은 또 얼마나 승
고하고 아늑하게 보였으
....., 나는 지금 이렇게달
려와 있는데도..... 그 쇠사
가시에 걸려있던 그것처럼
그냥 녹아버릴 것인가?)
「말 잘지 않아요!」
복합철에 응원거리는 알
개와같은 저지한 육성이었
다. 그제서야 자기 부르
는게처음이 아님을 알았다.
박병수는 덜미 걸린 교
양이처럼 장마른 얼굴을연
상케하는 목작대에 둘러앉
았다.

「아무래도 수술을 받아
야겠지요.」
「수술요!」
박병수의 얼굴이 훗날
아름다. 오죽하면 아내의
입에서 수술이란 말을 입
밖에 낼까 하는 남편으로
서의 어떤 자책감에서였다
원만한 질병은 그냥 끝이
들기는 아내였다.
몇시인가를 알리는 기동
시계의 그 온온함이 다시
박병수의 것작락을 스치고
지났다.
박병수는 조심스레 아내
의 표정을 더듬었다.
「내리버릴려고 해요.」
「무얼 말입니까?」
「이런 천치 같은!-」
집이때도 한해 마련한
동안이라도 애기같은

진 더 나지 않기로했
어요.」
박병수의 눈자위가 파르
르떨었다. 어쩌면 자기 앞
에 변해버리는 것같은 작
상 때문인지도 몰랐다.
(나의 아내는 또 무슨
집을 짓겠다는 것인가. 그
것 때문에 그 전전전전
생명체에게까지 잔인성을배
뿔겠다는 것인가. 급속도로
물이 가해지지 않던데 그
만한 액체들이야 그냥 제
대로 걸어 다니게 내버려
둬도 가능한 것인데.....
가장 비합리적인 것을 합
리화시켜 가며 인간 박병
술강요시키려 들게 무엇인
가. <계속>

※ 아늑한 분위기와 감미로운 음악 Classic Music Pop Song

※ 제대생 여러분의 휴식처

소라 다실

(우 생 당 앞)

바둑 속에서 신선의 세계를 배움시다

남 양 방 송 앞

대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나날이 복잡해지는 현대!!

△ 피곤한 머리를 건전한 오락으로 맑게 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현대기원

(우 생 당 앞)

바둑 속에서 신선의 세계를 배움시다

※ 추억을 심어 보십시오!

야의출사 단체촬영 합니다

카메라 대여

서문사진관

(시정서쪽)

D P & E

제대신보사 지정사진관

고급양품

남녀 Y셔츠 맞춤

선물용 넥타이 전문

최신유행과 멋의 전당

마니추리

(한일은행앞 2485)

신사코너 숙녀코너

제대생 여러분에게 특별봉사